

# ‘소방수’ 문희상…새정치 내분 불끝까

## 1년 4개월만에 재등판

## ‘관리형 비대위’ 꾸릴듯

## 당내 계파간 분란 해소

## 경색정국 돌파구 기대

문희상 의원이 1년 4개월 만에 구원투수로 다시 나서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게 됐다.

지난해 1월 대선 패배로 길을 잃은 당의 비대위위원장으로 낙마한 당을 이끈 후 같은 해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당권을 넘겼던 문 의원이 18일 원로중진 연석회의에서 임시 당 대표인 비상

대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1980년 ‘동교동계’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2년에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내리 5선을 했다.

조화와 포용의 리더십에 특유의 진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문 의원은 난파선처럼 표류 중인 당의 방향타를 바로 세워야 할 임무를 받았다.

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후 “빛나는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새정치연합이 어렵고 불안하고 백척간두에 선 상황”이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원이 지휘할 이번 비대위는 당내 분열상을 수습하고 와해한 조직을 재건해 차기 전당대회까지 무사히 당을 끌여가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했으나 진노(진노무현)계 등 일부 계파의 ‘박영선 체제’ 흔들기로 무산된 만큼 어느 누가 당을 이끌어도 당장은 혁신이 불가하다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다. 이는 당의 환골탈태를 노리던 ‘박영선 체제’를 흔들었던 진노계의 의도가 그대로 관통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기 전대론’을 거론하지만 당장 정기국회와 세월호특별법 등의 현안을 제쳐놓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내년 1~3월 전대 개최가 목표가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우선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당내 의사결정기구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 이어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조직강화특위를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당면 과제인 전대 개최를 위해 전당대회준비까지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조직 구성과 전대 톨 결정 과정에서 차기

당권 전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계파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지역위원장 선발 권한을 가진 조강특위의 경우 각 지역위원장이 전당대회 대의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사람을 하나라도 더 심기를 원하는 계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힐 지점으로 꼽힌다.

또 당의 모형을 당원 중심으로 할지, 시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정당’으로 하느냐를 놓고도 계파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중도 노선을 강화할지, 아니면 ‘좌 클락’을 할지의 논란도 ‘문희상 체제’가 정리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계파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문 의원이 맡게 된 가장 최대의 과제라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구원전문 등장

노선대립과 계파갈등으로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박영선 원내 대표 등 당 원로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정동영 “새정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살려면 기본부터 세워야 하고,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한편 당 대표를 선출하도록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시 회복하려면 당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왜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고문은 “당이 좌우에서 혼돈하는 데,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신음 소리가 전국에서 낭자하는 데, 좌우가 무슨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국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으로서 반대와 대안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마저 미달인 상황이다”면서 “새누리당은 한팀이 되어 보수정권 창출



을 위해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바가지가 다 깨지고 찢어져 누구를 담을 수 있다는 말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당 지지율이 최저점인데, 그나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재구성해 당을 재건한다고 하지만, 그날 민낯의 권력투쟁으로 무슨 재생이 되겠느냐”면서 “민주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왜 정권을 잡으려는지, 그걸 분명히 세우고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당이 살려면 당내 민주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과 당 대표 선출권을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장병완, 광주 신규 예산 확보 주도

### 전기연구원 분원 유치·복합방사선플랫폼 구축 등

정부의 내년 예산에 광주시의 신규 사업들이 대폭 반영된 배경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재정통인 장병완 의원의(남구)의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우선,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기연구원 분원 유치와 복합방사선플랫폼 구축 사업 등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 재정 당국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기연구원 분원 유치(총 사업비 405억원) 사업은 법률적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장 의원이 직접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로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

복합방사선 플랫폼 구축 사업(총 사업비 350억원)도 연구 용역 예산만 반영됐으나 장 의원의 예산



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치매 예측 뇌지도 구축 사업(총 사업비 285억원)’은 장 의원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매 예방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R&D특구연결도로(440억) ▲조경광고강성 차체사시부품기술개발(70억)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구축(400억) ▲로봇산업융합핵심개발 및 상용화(280억) ▲차세대광학모듈 기반구축사업(240억) 등의 신규 사업 예산 반영에도 장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與 보수혁신위 출범

## 6개월간 당 체질 개선

### 김무성 “공천권부터 바뀌어야”

새누리당이 18일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위원선정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수혁신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의 체질 개선 방안은 물론 개헌,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 정치권의 개혁담론까지 두루 검토하고 혁신정사전을 내용을 계획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 인선을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김영우 대변인을 비롯해 재선의 조해진·김용태·황영철 의원과 초선 강석훈·민병주·민현주·서용교·하태경 의원이 선정됐다. 전당대회 당시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원의 안행환 전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장·개혁파를 주축으로 재선급 이상은 비주류인 옛 친이(친이명박)계가 대부분이다.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강석훈 의원만이 꼽힌다. 이날 발표된 인사 10명은 모두 당내 인사로 당의 인사 9명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선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권이 비효율·비합리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다”면서 “정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때문이고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혁신위의 우선 과제로 공천 문제를 지목했다. 김 대표는 또 “혁신 활동을 길게 가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활동 기한을 6개월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태풍피해 나주배 농가

## 융자금 상환 1년 연기”

### 새정치 신정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배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상환 연기’를 이끌어내 주목을 끌었다. 신 의원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 태풍 불라탄 피해로 재해대책 경

영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나주 배 생산농가의 융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1031농가 232억8700여 만원의 상환시기가 올해로 도래, 농가경영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나주 배 생산농가와 나주시의 건의를 접하고 농협 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농업 생산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출도리발 장학금 500개 2,400만원  
소화기 100대  
독거노인 소화기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광주지역 자산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지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빚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                   |                   |
|-------------------|-------------------|
|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 5등 자전거 12명        |
| 2등 드럼세탁기 3명       |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
| 3등 제습기 9명         |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
| 4등 쿠키입력반습 12명     | 8등 이차상 1200명      |

※ 등품시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 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 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 지점 364-7557 (대성교차로가리)